

Church and Tribulation
교회와 대화나
나 나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Church and Tribulation

교회와 대화나

Church and Tribulation

By James W. Knox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교회와 대환난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펴낸이	김영균
초판발행	2011.12.21.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www.ilovekjb.com
표지그림	이장용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41-1

정가 4,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제1장 휴거와 재림의 비교 _10

제2장 대환난과 이스라엘 _26

제3장 대환난과 교회 _39

제4장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 _55

제5장 환난 전 휴거1 _73

제6장 환난 전 휴거2 _88



역자 서문

성경에서 매우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대환난을 통과하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나 책에서 본 것이나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에 의해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재산과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심지어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교회(그리스도인들)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쓰였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살전 4:13-18). 더욱 감사한 사실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대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믿는 자들인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큰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고후 11:2). 교회는 대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 지상에서 대환난이 있는 동안 공중에서 어린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계 19:7). 성경은 대환난을 “어린양의 진노”라고 부릅니다(계 6:16). 혼인식을 앞에 둔 어린양이 자신의 신부에게 진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큰 증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고전 10:17, 12:12-20, 27). 이것은 교회 “전체의 환난 통과설”과 “부분 통과설” 모두를 반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믿는 성도들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게 진노하는 셈이 됩니다. 스스로 분열하는 왕국이 설 수 없는 것처럼(마 12:25-26) 그리스도의 머리(예수님)와 몸(믿는 사람들, 교회)이 분열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는 교회의 일부만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부분 통과설” 혹은 “부분 휴거설”의 가능성을 일축해 버립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일부만 대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팔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몸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전체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전체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살전 4:16-17).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부활할 수도 없고 일부만 휴거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대환난을 통과한다면 전체 그리스도인과,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대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대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된 소망의 진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달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십자가를 전파함 라디오 방송(Preaching of the Cross Radio Broadcasting)”에서 네 번에 걸쳐 강의한 Church and Tribulation(1장~4장)과 교회에서 설교한 Pre Tribulation Rapture(5장과 6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입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비록 요약이지만,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1년 가을에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교회와 대환난”이라는 주제로 주일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v.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대환난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던 합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1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살전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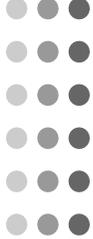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5-18)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만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1년 12월

역자 이우진



제1장 휴거와 재림의 비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닉스 형제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 되시며 우리의 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예 엄청난 거침이 되는 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하시는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나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나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선가 한번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그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막연히 옳겠거니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믿음을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살펴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며 왜 믿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네 번에 걸쳐 교회와 대환난의 관계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고 혼동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성격과 운명을 알지 못하면 대환난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BC 1650년 경에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18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하신 것입니다(세우리니, I Will).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야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5에서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13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신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할든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하여 하나의 독특한 민족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과는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으로 모든 사람들의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6)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자 종교체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그 종교체제 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고전 1:2)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에 어떠한 민족에게도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에는 외형적인 의식과 제사장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교회가 드리는 경배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 받은 적이 없고 성직체제도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지도부는 미국의 내쉬빌이나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기구(성구)를 동원해야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교단도 나오지 않습니

다.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직 자체도나 교단이나 성상이나 성수나 어떤 거룩한 의식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물질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한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 모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세상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이스라엘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엡 1:3) 교회가 거할 집도 하늘에 있습니다. “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 1:4)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와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사 62:5)

성경은 이스라엘이 신부이기는 하지만 처녀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네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죄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사 50:1)

그리고 남편도 없는 과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 54:4)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저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사 54:6)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사 54:5)

교회와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한 처녀인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버림받은 채로 이 세상에 흠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약혼자이자 아내이기는 하지만 아직 순결한 처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후 11:2)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신약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들이시고 나면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환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 위에서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 2: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벧전 1:1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실 때는 분명하게 다른 시기입니다.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휴거와 재림의 12가지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인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그러나 재림 때에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골 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살전 3:13)

둘째,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는

이 세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계 1:7)

셋째,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슥 14:4)

넷째, 휴거 때에는 주님께서 홀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 그러나 재림 때에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마 24:31)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 관해서는, 성경은 어떠한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인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먼저 많은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눅 21:11)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눅 21:25-27)

여섯째,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전 15:23) 그러나 재림 때에는 어떠한 부활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 3:20-2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 3:1-3) 그러나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덟째, 성경은 휴거 때에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새벽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계22:16) 그러나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

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말 4:1-6)

아홉째,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는 복된 소망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7-18)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째,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10)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계

19:15)

열한째, 휴거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그러나 재림 때는 하늘에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 때에는 천사가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갓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살후 1:7-8)

열두째,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실 것입니다(살전 4:16-17). 휴거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마 13:41-42)

복된 소망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재림은 이 세상에 대한 경고가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휴거는 믿는 자들의 소망이지만 재림은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

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살후 1:9-10)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마치 왕비가 왕의 영광에 동참하고 신부가 신랑의 영광에 동참하듯이 교회는 세상의 왕과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 날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게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번도 재림을 교회를 위해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재림 직전에 교회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가 교회의 복된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시는 것(coming)”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단어 “팔루시아(parousia)”는 휴거와 재림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어를 들먹이는 이유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며 연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리스어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휴거와 재림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말의 그리스어 단어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휴거와 재림의 그리스어 단어가 같은 이유는 둘 다 “오시는 것(coming)”이기 때문입니다. 휴거도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도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팔루시아)”이라는 측면에서 휴거와 재림은 그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오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분명하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휴거)”과 자신의 “교회와 함께 오시는 것(재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건 상관없이 성경은 이 두 사건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을 전후로 한 이 두 번의 오심(휴거와 재림)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먼저 데려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 점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성경적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대환난 때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대환난은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번도 대환난을 교회와 관련 지은 적이 없습니다.

대환난의 성격을 알기 위해 신명기 4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신약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신 4:1)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전체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30-31절)

신명기 4장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난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나온 믿는 사람들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신앙이나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성경에서 환난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에서는 환난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신명기 4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할 것이지만 결국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6-27)**

이 세상에 대한 환난이 닥칠 날이 올 것입니다. 대한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신약 교회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 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교회는 대한난이 닥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대한난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전파함 라디오 방송(Preaching of the Cross Radio Broadcasting)”의 제임스 닉스 형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

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약

1. 휴거와 재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2. 이스라엘은 BC 1650년 경에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마 16:18). 교회는 성령침례를 받고 나서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행 1:5, 고전 12:13).
3.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4.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에는 외형적인 의식과 제사장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드리는 경배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5.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엡 1:3 뵤전 1:4).
6.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사 62:5, 사 50:1, 사 54: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한 처녀인 신부라고 말씀

하십니다(고후 11:2).

7.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딤후 2:13, 벧전 1:13).

8. 휴거와 재림의 12가지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인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는 공중으로 오십니다(요 14:3). 그러나 재림 때에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골 3:4, 살전 3:13)

(2)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계 1:7).

(3)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살전 4:17).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슥 14:4).

(4) 휴거 때에는 주님께서 스스로 오실 것입니다(살전 4:16). 그러나 재림 때에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입니다(마 24:31).

(5)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에 관해서는, 성경은 어떠한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먼저 많은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21:11, 눅 21:25-27)

(6)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고전 15:23). 그러나 재림 때에는 어떠한 부활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7)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할 것입니다(빌 3:20-21, 요일 3:1-3). 그러나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8) 성경은 휴거 때에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새벽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22:16). 그러나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떠오르는 태양

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말 4:1-6).

(9)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는 복된 소망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살전 4:17-18).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살전 1:10).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계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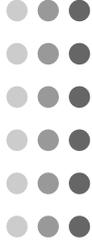
(11) 휴거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살전 4:16-17). 그러나 재림 때는 하늘에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살후 1:7-8).

(12) 휴거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살전 4:16-17). 그러나 재림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마 13:41-42).

9. 휴거는 믿는 자들의 소망이지만 재림은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살후 1:9-10).

10.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휴거)”과 자신의 “교회와 함께 오시는 것(재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1. 대환난의 성격을 알기 위해 신명기 4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신 4:1).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난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30-31절, 롬 11:26-27). 이것은 신약성경에 나온 믿는 사람들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2장 대환난과 이스라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닉스 형제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 되시며 우리의 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종종 기독교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쟁을 벌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와도 논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논쟁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와도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진리의 지식에 목말라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교리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분들은 논쟁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교회와 대환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믿는 이유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은 교회와 전혀 다른 정체성과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

해 지상으로 오시는 것, 즉 “두 오심(two comings)”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 이후에 지상에 대한난이 임하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4장이 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지와 이것으로 마서 11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한난은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교회와는 단 한번도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어찌된 까닭이냐?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렘 30:4-10)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대한난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전체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 붓는 격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 붓는 격노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 20:33-38)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에 그 수신자가 명백하게 드러나며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미래에 어떤 일을 겪을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 12:1)

여기서도 대환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백성”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21에서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난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며 교회를 향한 게 아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서신에서는 단 한번도 대환난이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다섯 번에 걸쳐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번, 마가복음에서 두 번, 그리고 계시록 7:14에서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모두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이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마 24:15-16,21)

성경은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대환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다니엘서 12:11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이스라엘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정확히 같은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

거나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자는 겹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rod!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막 13:14-20)

마가복음의 본문은 어디에서도 대환난이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대환난은 교회가 아닌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교회는 결코 지상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환난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바로 “다니엘의 70째 주”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기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

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단 9:24-27)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네 백성”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었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거룩한 도시”도 예루살렘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한 주(week)”는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¹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되듯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483년 즉 69주(69 weeks)가 흘렀습니다.²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요, 손길입니다.

고레스의 명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역사적으로 483년 즉 69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one week)가 남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주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은 항상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마지막 한 주에 대한 예언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나면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26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¹ 우리말로는 “한 주”라고 하면 7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어에서 week는 일곱 개로 구성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eek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 7일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습니다.-역주

²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저자의 <성경적 종말론>과 로버트 앤더슨(Robert Anderson)의 <The Coming Princ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역주

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A.D. 70년 경에 티투스(Titus) 장군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에서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십자가와 함께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중지되고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민족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을 모은 무리입니다.

로마서 11:11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실족하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1장에서는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래는 다니엘서 9:27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때 중지되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주(7년)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9:27에 의하면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읽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문맥은 바로 다니엘의 70째 주인 대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대환난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기 전에는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때(단 9:26)” 예언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교회가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 갈 때까지는 예언의 시계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환난이 3년 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환난은 한

주(week)인 7년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물가가 오르고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세계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배교한 기독교인들은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주님을 증언해 본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혼을 얻어온 적도 없습니다. 현대의 배교한 기독교인들은 조그마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참지 못합니다. 조그만 더위도 불평하고 조금만 추위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대환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성경해석은 신문과 잡지와 TV뉴스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대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 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했지만 그것도 대환난은 아니었습니다. 중세에 유럽에서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회의 박해와 모진 고문 가운데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아일랜드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난은 아닙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나약해 빠진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교회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압력을 넣으면 그것이 박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겪어도 교회가(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칭얼거립니다.

다니엘서 9:27은 7년 대환난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70주 중 69주도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주인 70째 주도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인 대환난은 이사야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제는 성경 66권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사 66:8)

이것은 대환난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데 이 구절은 그 산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8에 서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8은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된 고통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15-22은 7년 대환난 중 중반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마태복음 24:15-22의 사건은 대환난의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에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 민족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의 고통은 7년 환난 중 전반기를 의미합니다. 7년 대환난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대환난 기간에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환난 기간 중에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

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는 교회를 위한 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잠시 중단된 시기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의 때에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건(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6:8은 대환란의 전 3년 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마지막에 있을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격노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사 66:15-16)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19-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툷과 두발과 아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사 66:19-24)

이사야서의 66장은 66권 성경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과 다니엘서 9장은 7년 대환난이 신약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와 대환난이라는 주제의 전체 성경 공부 중 절반 가량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카세트 테이프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면 무료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내야 자료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낸 후에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872 Glenwood Road, DeLand, FL 32720 USA³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전파함 라디오 방송”의 제임스 닉스 형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³ 이 강의를 할 당시에는 다른 주소였으나 여기서는 최신 주소로 수정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독자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자료를 보내줍니다. 단, 인터넷이 되는 경우 편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길 권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jameswknox.org-역주

1. 예레미야서에서는 대환난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건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렘 30:4-10)
2.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이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겔 20:33-38).
3. 다니엘서에서도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단 12:1, 마 24:21).
4. 신약성경에서는 단 한번도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5. 신약성경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이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24:15-16,21, 막 13:14-20).
6. 대환난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바로 “다니엘의 70째 주”입니다(단 9:24-27).
7. 고레스의 명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역사적으로 483년 즉 69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one week)가 남게 됩니다.
8. 십자가 때 중지되었던 유대인들의 시계는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9.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 다니엘의 70주 중 69주도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주인 70째 주도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11. 이사야서 66장은 7년 대환난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을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사 66:8, 마 24:8, 사 66:15-16, 사 66:19-24).



제3장 대환난과 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닉스 형제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 되시며 우리의 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 딜랜드 시에 있는 성경침례교회의 사역인 “십자가를 전파함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8-10)

오늘은 교회와 대환난에 대해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는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의견이나 교단의 의견이 아닌 성경 기록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 7년 간의 대환난 기간 중에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4장, 로마서 11장, 예레미야서 30장, 에스겔서 20장, 다니엘서 12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대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으시는 진노의 때이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로마서 11장, 이사야서 66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대환난에 관한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단 한번도 신약 교회와 관련하여 대환난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지금 전부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가 대환난 기간 중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증거를 계속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고전 15:22-24)

본문에서 “끝”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5번에 걸쳐 이 “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은 단순히 때(tim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period)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6에서는 언제 이 끝이 오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단 12:6)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여 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7절)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에 끝이 오면 끝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난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마 24:13-15) 여기서 말씀하시는 끝은 대환난의 끝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23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 구절을 보면 교회는 대환난 이전에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대환난 기간에 지상에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대환난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아팜에게서 경전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다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함(the fullness of the Gentiles)”과 “이방인의 때(the times of the Gentiles)”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 21:24) 이방인들의 때는 이방인 국가들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 국가가 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일을 중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이 끝나고 교회를 다루심이 다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향한 대환난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환난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7년 간의 대환난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3장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5장을 보면 24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 5:9)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인데 이들은 공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왕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왕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받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주님께서 대환난 전에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대환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교회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 후에야 6장에서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왕관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환난의 봉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계시록 5장을 끝으로 19장까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환난이 있는 동안 공중에서는 교회를 위해 어린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대환난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과 휴거를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휴거는 환난 전에 있을 것이고 재림은 환난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려고 오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오시는 것은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림(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⁴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이 세상에서 머리 국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날을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서는 이 날에 대해 수백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일반적으로 대환난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재림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은 신비(Mystery)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이것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니다. 교회와 교회의 소망인 휴거는 모두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는 민족적인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하니라.”**(마 27:25)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12:37)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

⁴ 영어에서 Revelation이라는 말은 계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주

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환난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난을 통과하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원수인 마귀의 손으로 행하는 환난을 받습니다.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이 아닙니다.⁵

계속해서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슌 9:9)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11장에서는 유다가 주님을 은 삼십에 팔아 넘기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⁵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70 번째 주이며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난은 7년이지만 계시록 2:10에 나온 환난은 열흘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이 아닙니다. -역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서른 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서른 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슥 11:12-13)

스가랴 12장에서는 계시록 1장과 같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슥 12:10)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계 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부했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스가랴 13장에서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슥 13:7)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대환난 때 이스라엘의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하리라.”(슥 13:9)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 중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저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나와 함께 임하리라.”(슥 14:2-5)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대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 대환난의 끝에 주님께서 올리브 산 위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천년간 통치하시게 됩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슥 14:9) 보시는 바와 같이 대환난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난을 묘사하는 어떤 문맥에서도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난은 많은 표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많은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표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적이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고전 1:22)

표적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요 4:48)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를 위해 어떠한 표적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눅 21:27-28)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자신들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대한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롬 8:23-25)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를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지 못하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은 이스라

엘이나 이 세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것도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표적을 기다리거나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표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것을 향하면 배교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닌 표적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난 때 하늘에서도 큰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표적을 보고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혼란에 빠지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혼동에 빠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표적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는 표적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뭇솔리니, 로널드 레이건, 사담 후세인 등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 전에 먼저 오셔서 교회를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 2:3-8)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대언자가 예언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막고 있는 이**”가 막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막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이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막고 있는 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옮겨지기 전까지만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길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에서 옮겨져서 공중으로 들려올라 갈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그제서야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환난이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된 소망인 휴거는 언제나 즉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성령님의 인도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휴거는 바울의 생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휴거 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휴거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대환난과 재림에 대해 경고할 때는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언제든지 휴거 될 수 있는 반면 교회를 제외한 사람들인 “그들”은 교회가 들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인 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2-3)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세상으로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는 먼저 많은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어디에서도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언제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표적을 통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위한 표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10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I will also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계 3:10)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하는 바로 그 시간에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시험의 그 시간 자체로부터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10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시간”은 대환난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시간”은 온 세상에

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대환난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계 13:8)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대환난 전에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므로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 주제를 한번에 공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와 대환난”이라는 이 주제를 공부한 전 과정의 테이프를 구하기 원하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872 Glenwood Road, DeLand, FL 32720 USA

지금까지 “십자가를 전파함 라디오 방송”의 제임스 닉스 형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다니엘서 12:6-7에 의하면 끝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환난과 관련이 있습니다(마 24:13-15).
2. “이방인들의 때”는 이방인 국가들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눅 21:24).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롬 11:25-27).
3.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환난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6장 부터 19장 사이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인 계시록 4장과 5장에 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늘에 있는 주님의 왕좌 주위에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계 5:9).
5.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Revelation, 혹은 계시)이라고 하고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은 신비(Mystery)라고 합니다.
6. 교회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마 27:25, 마 12:37)
7. 스가라에는 대환난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슌 9:9, 11:12-13, 12:10, 13:7,9, 14:2-5,9).

8.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난은 많은 표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표적이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1:22). 표적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합니다(요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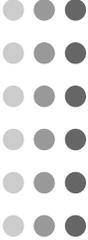
9.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자신들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눅 21:27-28).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표적도 보지 않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립니다(롬 8:23-25).

10.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살후 2:3-8, 마 16:18).

11. 휴거는 언제나 즉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살전 4:13-18). 바울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휴거 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12. 교회인 “우리”는 언제든지 휴거 될 수 있는 반면 교회를 제외한 사람들인 “그들”은 교회가 들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살전 5:2-3).

13. 계시록 3:10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계 13:8).



제4장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닉스 형제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 되시며 우리의 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누구이건 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롬 3:23)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5: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딤후 1:15). 성경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와 대환난에 대한 넷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열 가지 이상의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제 의견이나 생각이나 특정한 교단의 입장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대환난이라고 알려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다가올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10)

구약성경에는 대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쫓아버내어 멸하시리니”(사 13:9)

스바냐 1장과 3장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신속히 제거하리라.”(습 1:18)

스바냐 3장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습 3:8)

계시록에서는 이 대환난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 대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계 6:16)

계시록에서는 열 번에 걸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종교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것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9-10)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교회는 대환난 기간 중 절대 지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대환난을 포함하는 주의 날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모르나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살전 5:1-8)

대환난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나서 바울은 9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대환난이 벌어질 때 우리는 변화 받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

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롬 5:8-10)

로마서 5장의 본문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을 삼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은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0절에서는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9절은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인 대환난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10에서 증언한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서신서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리가 대환난 전에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대환난 기간 중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교회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대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계시록 7장의 앞부분(1-8절)에서는 144,000명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열두 지파에서 각 만 이천 명씩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대환난 때 남은 자들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의 후반부(9-17절)에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로 중 한 명은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질문을 하고 요한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13-14절). 그러자 그가 이들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이들은 환난 전에 들림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이들이 자신과 다른 그룹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환난이 진행되는 동안 대환난 전에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계 21:22) 그러나 이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계 7:15)

교회가 들림 받아 올라간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계 21:25) 그러나 이들은 밤낮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계 7:15). 이들은 교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대환난 기간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성경은 구원받아 영광 중에 있는 교회와 대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에는 **“모든 족속**

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out of)”라고 표현합니다(계 5:9). 그러나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of)”라고 합니다(계 7:9). 교회는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나와(out of) 하나의 민족을 이룬 무리이지만 대환난을 통과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교회처럼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나와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온 무리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전에 속해있던 민족에 아직도 그대로 속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처럼 구원받아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들림 받아 올라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 환난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구원받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게 되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네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네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사 60:1-3)⁶

⁶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교회시대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지만 이것은 대환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기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역주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사 49:6)

“오 너희 민족들이야,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시라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이다.”(신 32:43) 로마서 15:10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두 대환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의 증언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쫓과 두발과 아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사 66:19)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의 심판은 대환난의 끝에 있을 이방인들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그러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31-33,46) 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5:33-34에 나오는 양들입니다.

복된 소망인 휴거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 재림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는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휴거가 새벽별이 뜨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⁷ 그러나 재림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말 4:2)

새벽별은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뜹니다. 새벽별은 아침이 오기 전에 뜨는 별이며 태양이 뜨면 아침이 옵니다. 우리는 다음의 성경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왔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눅 12:38) 삼경은 마가복음 13장에 의하면 닭이 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막 13:35) 이것은 모두 교회와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경에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마 14:25) 이 때는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오시는 시간과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시간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 두 시간(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골 3:4) 우리

⁷ 교회는 항상 휴거를 상징하는 새벽별(셋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듯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벧후 1:19)-역주

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들림 받아 올라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휴거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신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휴거와 재림 사이에는 7년 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결코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휴거를 통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대환난 전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3-17)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들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지상에 남아서 대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만일 휴거와 재림

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이 누구 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롬 11:25-26)

주님께로 회심한 유대인들은 대환난 전에 교회가 들림 받은 후에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이 복음의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마 25:41-46).

대환난 기간 중 회심한 유대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13:47-50)

휴거와 재림 사이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대환난입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것이며 유대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때 유대인들과

함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을 여기서 다시 찾지는 않겠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31에서 나오는 “**선택 받은 자들**”이 교회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⁸ 왜냐하면 로마서 8:31에서도 선택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문맥을 보면 이들은 교회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⁹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God’s elect peopl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이 선택 받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사 65:9) 이것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사 45:4)

우리가 앞의 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휴거 때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택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분명하며 결

⁸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마 24:31)

⁹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롬 8:33)

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둘째 본문은 누가복음 17:26-30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교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형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한 번도 교회와 연관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는 명칭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의 어떠한 서신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의 주님 (Universal Lord) 되심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림 때 사용되는 주님의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를 통과한 것은 환난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한 것의 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해서 살아남았으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대환난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성도들도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가지 않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교회의 모형이라기 보다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형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대홍수 이전에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갔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대환난 이전에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대환난에 대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

도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일(휴거)에 대해 두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난은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계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심지어 대환난이라 할지라도)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6:2)

우리는 이 복된 소망(휴거)으로 인해 단순히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고전 15:58)

우리가 휴거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 3:20-21)

우리는 이 소망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

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10)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복된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 2:11-13)

복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오셔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게 하실 것입니다.

지상에서 대환난이 있을 때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모든 일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들은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주님의 원수들을 벌주고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즐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냈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단지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와 대환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번에 걸친 이 시리즈의 강의를 모두 듣고 싶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872 Glenwood Road, DeLand, FL 32720 USA

지금까지 “십자가를 전파함 라디오 방송”의 제임스 닉스 형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다가올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살전 1:10).
2. 구약성경에는 대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 13:9, 습 1:18, 습 3:8).
3. 신약성경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전 1:9-10, 계 6:16).
4.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전 1:5-9).
5. 로마서에서도 교회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5:8-10).
6. 유대인들(계 7:1-8)과 이방인들(계 7:9-17)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7. 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계 21:22, 7:15, 7:9).
8. 교회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 무리이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계 5:9, 7:9).

9.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함께 땅에서 복을 받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사 60:1-3, 사 49:6, 신 32:43).

10. 성경에 의하면 대환난 기간 중 유대인들의 증언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마 24:14, 사 66:19)

11. 계시록 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양들입니다(마 25:31-34,46)

12. 휴거와 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는 새벽별이 뜨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계 22:16, 벨후 1:19) 재림은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말 4:2).

13. 교회가 휴거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 할 수 있습니다(골 3:4, 살전 4:13-17).

14.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31에서 나오는 “선택 받은 자들”은 교회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선택 받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사 65:9, 사 45:4)

15. 노아는 교회가 아닌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눅 17:26-30)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에녹입니다.

16. 대환난은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1-3).
17.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인해 근심하지 않습니다(요 16:2).
18. 우리는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고전 15:58).
19. 우리가 휴거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빌 3:20-21).
20. 우리는 이 소망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살전 1:10).
21.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살전 4:16-18).
22. 휴거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요일 3:2-3).



제5장 환난 전 휴거1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첫째 부활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구약성도들이 부활했으며 주님께서는 낙원에 있던 이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휴거라고 알려진 본격적인 추수는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삭줍기는 대환난 동안 회심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와 본격적인 추수와 이삭줍기가 첫째 부활을 이룹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휴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6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두 7년 대환난이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대환난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대환난으로 징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대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시 내려와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휴거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대환난을 통과하다가 대환난 끝에 함께 모여 휴거 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먼저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계 1:20)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일곱 교회가 나오니다. 2장과 3장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 3:22)

그리고 4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계 4:1)

“**이 일 후에**”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지상에 있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하늘로 가는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요 10:7)

¹⁰ 교회의 일부가 대환난을 통과하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모두 대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엡 4:4).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전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마지막 때를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휴거 될 때 전체 교회가 모두 부활하여 함께 들림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짓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역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1-53)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계 4:2) 여기서서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하늘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의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계 6:1-2) 교회가 휴거 되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6:1-2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살후 2:1-2)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불

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21가지의 끔찍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왜 이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만일 제가 21가지 심판 중 단 하나의 심판이라도 통과하게 된다면 저는 몹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한난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살후 2:3) 지미 카터나 레이 건이나 오바마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 2:4) 대한난을 주제로 한 글들을 보면 누구 누구가 적그리스도(The Antichrist)라고 서슴없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에 누구도 앉을 수 없다면 누구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성전이 서기 전에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없으면 적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없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앉을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한난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내일 바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빨리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저는 주님께로 들려 올라 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지상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살후 2:5)

여기서 말하는 **“막고 있는 이”**는 지난 번에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서는 대환난 기간 중에도 지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대환난 기간 중에도 지상에 남아서 **“환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고 있는 이”**가 마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귀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스

스로 분쟁을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마 12:26)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막고 있는 이(he who letteth)”는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what)”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로 옮겨지고 나면 6장에 나온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지상에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6-18)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대환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내용은 짐승과 용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7절에서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계 13:7)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짐승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짐승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에게 패배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가고 다른 그룹은 지상에서 짐승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그룹은 교회이고 지상에서 짐승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룹은 환난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못하지만 환난 중에 회심하여 성도들이 된 사람들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가 휴거 되고 나서 환란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crowns of gold)을 썼더라.”(계 4:1-4)

계시록 1장에서 교회는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 따라서 계시록 4장에 나온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쓴 사람들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 4:5) 계시록 4장의 장소는 지상이 아닌 하늘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 5:1-5)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이건 간에 이들은 어린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으며 모두 금관(crowns of gold)을 썼는데 아직 첫째 봉인이 열리기 전입니다(계 6:1). 아직 첫째 봉인이 열리기도 전인데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어린양의 왕좌 주변에 모여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 6:6)

봉인을 떼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어린양입니다. 같은 분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린양으로 나타나셔서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아직 첫째 봉인을 떼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린양께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양이십니다.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는 교회는 어린양을 만나게 되고 지상에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자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어린양이 되신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자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레미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렘 30:4) 이 구절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어찌된 까닭이나?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렘 30:5-7)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바로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난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he shall be saved out of it).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야곱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out of it”**이라고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from it”**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서 구원받지(out of it)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 받았고 거듭났으며 어린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환난을 통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문맥입니다. “죄를 짓고”(단 9:5)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11절) “모세의 율법”(13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14절) “주의 도시 예루살렘”(16절)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19절) 다니엘서 9장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백성(유대인)과 다니엘의 도시(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 다니엘 9:24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finish) 죄들을 끝내며”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요 19:30) 저에게는 끝내야 할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끝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들을 끝내며”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화해를 이루고” 저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저는 이미 영원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고전 1:30). 또 다른 영원한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이레”는, 다니엘이 9장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끝내기 위해 마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죄는 저의 구원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환난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

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대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과 스바냐 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의 70째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계시록 6장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5-17)

본문을 보면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cave man, 원시인)”이 나옵니다. 저는 원시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다만 원시인이 과거에 존재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것을 믿을 뿐입니다.

스바냐 1장도 보겠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습 1:14) 여기서도 주의 큰 날이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5,9-10)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는데 다시 어린양의 진노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살전 5:9,11)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이단 교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이유는 자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느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도 자신은 휴거 되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자신은 휴거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자신처럼 선행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은 휴거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큼 선하거나 의롭지 못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 주신 것(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선행을 많이 하고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결국 휴거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잡히기 위해 대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계명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출 20:15) 대환난을 통해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은 오염되었고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계명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 20:7). 그런데 계시록에 의하면 대환난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모독합니다(계 16:9,11,21).

대환난 기간은 인류의 역사 중 최악의 부분이라고 할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최악의 순간에 어느 누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¹¹ 하나님의 계획은 대환난 기간 중에 사람을 그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 시대에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대환난 때에는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휴거 될 만큼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대환난 때에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¹¹ 구약시대의 구원과 대환난 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저자의 <세대주의 재고찰>을 참고하십시오. -역주

1. 첫 열매와 본격적인 추수와 이삭줍기가 첫째 부활을 이룹니다.
2. 대환난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3.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대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4. “이 일 후에” 계시록 4장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있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5.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하늘로 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 10:7).
6.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16-17과 고린도전서 15:51-53에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7.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하늘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계 4:2).
8. 교회가 휴거 되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계 6:1-2, 살후 2:1-5).
9.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휴거 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마 16:16-18).

10.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짐승이 어떤 “성도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11. 교회는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왕관을 받게 됩니다(계 1: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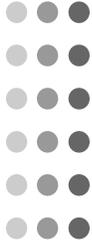
12. 성경에서는 대환난을 “그 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렘 30:5-7).

13.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며 대환난의 목적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대환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단 9:24).

14. 성경은 교회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전 1:5,9-10).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전 5:9).

15.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6장 환난 전 휴거2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 없는 인도자를 따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 없는 인도자와 생각 없는 추종자가 함께 어리석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대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백억이 넘는 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수백 만권의 성경을 인쇄하는 데 큰 돈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헐박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행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십일조로 내지 않은 돈을 병원비로 쓰게 하신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헐박입니다.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남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24장으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단 한번도 천사를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상급으로 왕관(금관)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과 왕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천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계 1:6). 성경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 2:12, 계 5:10). 그러므로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들은 대환난 전

에 들림 받아 올라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계 5:9).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여 주님께로부터 왕관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계 5:10).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서 받아서 왕관을 쓰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두 직분을 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제사장처럼 흰 옷을 입고 동시에 왕관을 쓰고 있다면 그들은 다시 태어난(딤후 3:5)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벧전 2:9). 따라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하늘에 있는 이들은 교회 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로들은 민족이나 도시나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역대기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이가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여덟**

사람이더라.”(대상 24:1-4)

전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6명과 8명, 즉 스물 네 명입니다. 이들 스물 네 명의 제사장이 전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벧전 2:9-10)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장로들은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며 왕가의 제사장들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교회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휴거 되어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계 21:10-12)

문들 위에 기록된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 두 지파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수는 스물 넷이 아니라 열 둘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스물 네 장로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천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간 교회

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까지 처음 주신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부분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어서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합니다. 마치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지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지어내는 과정에 구약성경을 인용한다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만들어 내는데 마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구약성경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겠습니까?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서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번역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비평하지 않게 말입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구절이 있을 때 자신이 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모순처럼 보인다고 해서 두 구절을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소위 성경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을 볼 때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평을 피하기 위해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뜯어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은 모순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리적인 진리를 제시하시기 위해 일부러 신약성경을 기록하실 때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신 것

일 뿐입니다.

먼저 요엘 2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욘 2:28-31)

요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렸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행 2:16-20)

베드로는 요엘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교회에게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두려운 날”과 “주목할 만한 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대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교회는 주목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 날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대환난을 맞는다면 그날은 두렵고 끔찍한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대환난이 일어나는 동안 공중에 있다면 그날은 그저 주목할 만한

날일 뿐입니다. 저는 대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 날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이 토씨 하나 까지 서로 일치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오류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엘 2:3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대환난을 통과하여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구출(deliver)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난을 통과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장소가 특정해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21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어디서 구원받게 되는지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save)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엘 2장에 의하면 대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구출(deliver)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save)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주목할 만한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며 반드시 구출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휴거 되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교리는 “침례교의 연옥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

인들이나 이 세상이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자신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가진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17-21)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국민일 뿐만 아니라 대사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자국의 대사가 있는 곳에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국민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까? 어린양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하실 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사관저를 폐쇄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인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의 모형인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에녹은 대홍

수 전에 들림 받았지만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한 것입니다. 홍수 전에 구원받은 에녹을 위한 상급은 하늘에 있었고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노아를 위한 상급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통과하고 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이 아닌 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에녹은 하늘에 속한 민족의 모형이고 노아는 땅에 속한 민족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상에 남아 대환난을 통과하는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끝까지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대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마 24:20-21)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골 2:16-17)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안식일에 여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환난은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번도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되니 그것을 대비하려고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 권의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대환난과 관련해서는 교회에게 경고하거나 대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

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난 때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만 휴거 되고 불의하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롯도 교회의 모형입니다. 롯과 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롯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할 때 그의 사위들조차 비웃었습니다(창 19:14).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나오기 전에는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완전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창 19:17-29).

롯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¹² 창세기 19장을 읽어 보면 롯의 이웃들은 아무도 롯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심판받기 전에 그 곳으로부터 옮겨졌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벧후 2:7-8)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이 있는 한 그곳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영화나 소설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 될 때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혼란을 바로잡으며 전 세계의 지도자로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진리를 간과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성경

¹² 롯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구약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저자의 <세대주의 재고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주

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¹³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 7:13-14)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 24:37-39, 눅 17:26-27). 노아의 날에 전 인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는 롯의 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눅 17:28-30). 이 때도 오직 한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삼 년 반 동안이나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휴거 되면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인구는 7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¹⁴ 이중 무슬림이 1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9억 명 정도 됩니다. 힌두교도는 8억 명 정도 됩니다. 불교도들은 3억 5천 명 정도 됩니다. 무신론자는 2억 5천 명 정도 됩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2억 명 정도 됩니다.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억 5천 명 정도 됩니다. 부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억 명 정도 됩니다. 이 밖에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 및 기타 여러 종교를 믿는 사

¹³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고 있지 어렵다고 하지 않은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방법은 쉽습니다(마 11:28-30, 롬 10:9-10).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법을 쉽게 하셨습니다(딤후 2:4). 사람들이 완악하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느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역주

¹⁴ 저자가 강의를 할 때가 아니라 역자가 번역할 때인 201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역주

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그런데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이 세상의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휴거 될 수 있을까요? 1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아세례와 그 밖의 성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인은 약 4억 명 정도 됩니다. 1억 8천만 명 정도가 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8천만 명 정도는 성공회 소속입니다. 1억 8천만 명 정도가 “기타”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와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는 교리 위에 세워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앞에서 “기타” 기독교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인식교인들과 몰몬교인들과 같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 성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근본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

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 클럽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나 정교회나 개신교나 그 밖의 이단들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든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계산해 보면 70억의 인구 중 수백만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교단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리를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휴거 되는 사람이 수백만 정도라면 교회가 휴거 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 휴거라는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 갈 것입니다. 아마 몇 주간은 휴거라는 사건이 일간지와 뉴스와 주간지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몇 달이 지나면 뉴스와 미디어는 할리우드 스타 중 누가 가장 춤을 잘 추는지, 누가 가장 섹시한 스타인지, 혹은 마이클 잭슨의 친자식은 몇 명이었는지와 같이 “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해외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미국인들은 토요일에 어떤 운동 경기가 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휴거 된다 해도 계속해서 휴거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마 휴거는 오래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나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TV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거나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잠시 온 세상을 속이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계 12:12). 하나님께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세상이 마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강제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속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것입니다. 현금보다는 카드가 편하지만 그 카드를 잃어버리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카드를 아예 손이나 이마 속에 넣고 제안할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편하게 하는 일인지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계 13:16-17)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TV같은 미디어를 통해 그럴듯하게 광고하면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만일 오늘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들림 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사라질 것입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미국이, 그것도 “바이블 벨트”¹⁵라는 지역이 이럴진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휴거가 일본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터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이 나라들에는 교회의 휴거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프랑스인 중 90% 이상은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¹⁵ “바이블 벨트”란 근본주의 교회가 많은 미국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역주

칼빈주의식 천주교인들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면 할 일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직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때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들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2. 그리스도인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벧전 2:9). 전체 제사장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수는 24입니다(대상 24:1-4).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는 24가 아니라 12입니다(계 21:10-12).
3. 요엘 2:28-31과 사도행전 2:16-20을 비교해 보면 지상에서 대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대환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환난 전에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대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4. 주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교회에게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5.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가진 대사가 되었습니다(고후 5:17-21).
7. 교회의 모형인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의 모형인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8. 대환난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고 안식일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마 24:20-21).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골 2:16-17).

9. 사도 바울은 단 한번도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되니 그것을 대비하라고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10.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만 휴거 되고 불의하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롯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벧후 2:7-8) 하나님의 심판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 19:17-29).

11.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마 7:13-14).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마 24:37-39, 눅 17:26-27). 노아의 날에는 전 세계에서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롯의 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눅 17:28-30). 롯의 날에도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12.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고 휴거 될 수도 없습니다(엡 2:8-9). 휴거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휴거 사건은 몇 주 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사무엘 김	104	3500
2	내일은 늦으리	홍성율	56	2000
3	하나님의 경고	홍성율	116	4000
4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5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6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7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8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64	8000
9	행복한 그리스도인	홍성율	40	1000
10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11	깊이 생각하라	홍성율	28	1000
12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13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4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5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6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7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8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9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20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21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22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23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4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5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6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7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8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9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30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31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33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32	15000
34	창세기 1:1-3 강해 (간극이론)	Jeffrey Tibbetts	96	4000
35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이우진	40	1000
36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7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8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4	1000
6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7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14종과 소책자 23종 등 37종의 도서를 총 7만 6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한 권 당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

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1년 12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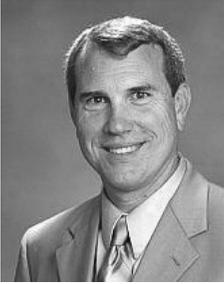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옮긴이 : 이우진

-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 現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편집장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